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산별노조란 무엇인가요?

유럽지역 '산별' 노동운동 방향

# 동일 업종 노동자 뭉쳐 교섭권 강화

최근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일제히 산별노조의 전환에 찬성하면서 산별노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대 노총 중 민주노총이 2006년을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위한 총력집중의 해로 설정하면서 대기업 노조들도 빠르게 변화를 모색하는 추세다.

한국노총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조직에 걸쳐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운동을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노조의 산별체제로의 전환은 인력과 재정을 집중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시위장면)

## 1 산별노조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조 성향은 물론 그 나라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결정한다. 나아가 사회·경제정책의 성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의 형태로는 직종별노조, 기업별노조, 산업별노조, 지역별노조 등이 있다. 이중 기업별노조는 해당기업 정규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산별(산업별)노조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정규·비정규직)는 물론 5인 이하 최소 규모의 기업노동자와 실업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는다.

산별노조는 곧 규모별·직종별·성별·학력별·지역별 차이를 넘어 개별기업에 고용되느냐, 아니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는 노조의 기업이기주의나 노사협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강력한 노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력과 재정이 집중되고 확대되기 때문이다.

조합활동은 단위기업의 임금과 복지를 뛰어 넘어 동일업종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복지수준 확보를 목표로 이뤄진다. 그러나 산별노조가 딱히 좋지만 한 것은 아니다. 노사간의 사소통이 긴밀하고 조합원들의 참여의식이 높은 기업별노조와 달리 산별노조에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규모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과 복지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별교섭 과정에서 큰 진통과 갈등이 따르기도 한다. 산별교섭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경우 단위교섭과 기업단위교섭의 이중·삼중교섭으로 노사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기 쉽다.

## 2 외국의 경우 모두 산별노조인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별 노조체제를 유지하고

### ■ 산별노조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조직	·비정규직 실업자등 가입대상 확대 ·조직역량 강화	·기업단위 하부 조직 취약 ·산별노조 내부의 관료주의화
활동	·사회·경제 정책 요구 등 정치활동 강화 ·노동자간 연대 강화	·좁은 정치적 교섭의 우려 ·조합원 무관심으로 가입을 낮추기 쉬움
교섭 및 정의행위	·피업 영향력 큼 ·피업 자주 할 수 없어 피업기간 단축	·피업때 경제와 국민에게 주는 피해 막대함 ·이중교섭으로 기업부담 증가
노동시간	·노사교섭으로 실질적인 전 산업의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떨어져 노사 공멸 가능성
교육	·같은 업종 간 직업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관리에 효율적	·직업훈련은 산별체제가 아니라도 현재 실시행됨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에콰도르, 필리핀 정도 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처음에는 작게 출발했던 산별노조들도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의 독점이 강화되면서 분산된 노조의 힘으로는 대응이 힘들어지자, 조직통합을 통해 더 커다란 산별노조로 나가다 다시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3 노조연맹과 어떻게 다른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00 노동조합연맹' 등은 기업별노조와 산업별노조의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연맹'은 같은 업종 또는 산업군이 합친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로서 연맹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더라도 집행권한은 철저히 기업별 노조에서 갖고 있다.

즉, 기존의 노동조합연맹은 산하 노조의 교섭권 위임이 있어야만 교섭에 참가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는 당연히 교섭권을 가지게 돼 교섭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조직운영도 중앙이 중심이 된다. 단

체교섭과 단체행동도 모두 중앙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대신 산하 조직들은 지역이나 중앙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중앙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산별노조는 단체교섭·파업 등 교섭과 단체행동의 조직중심이 단위사업장이 아니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고립분산적인 기업별노조보다 강력한 공동교섭·공동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교섭내용 역시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 등 그동안 입단합을 중심으로 기업별 교섭에 진행한 것과 달리 산별교섭은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해 폭넓게 다루게 된다. 근로조건, 고용안정, 복지제도를 산업별 차원의 교섭으로 올려 사회제도화하는 것이다.

## 4 산별노조 조합원은 몇명?

지난달 달 30일 현대차·기아차·대우차를 포함한 대공장 중심의 13개 노조 8만7천명의 조합원들이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 62만7천

700여명(공무원노조 제외) 중 산별노조 조합원이 36만9천명, 기업별노조 조합원이 25만8천 700명으로 산별노조 중심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전체 노동자의 10%선에 머물고 있다.

## 5 산별노조 전환시 이점은?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된 배경으로는 국의 생산의 확대, 모달 생산, 외주·하청 생산의 증가로 말미암은 고용불안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와 비정규직 외면에 대한 안락의 비판, 노조간부들의 부패와 분파 심화 등 노동운동의 위기로 산별노조 전환에 한몫을 했다.

노조는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고용불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연대강화, 기업별 노사담합과 살리주의의 극복, 각종 법제도 개선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사에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시작일 뿐이다. 노사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새로운 산업별 노사관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6 사용자가 꺼리는 이유는?

산별노조 전환을 두고 사용자들의 우려가 높다. 대규모 파업 가능성, 산별과 기업별 이중교섭에 따른 교섭비용 추가 발생,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병존 등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국내 핵심 제조업의 노사불안 가중이다. 경총 관계자는 "임금이 나 근로조건에서 업종, 기업 간 격차가 엄연하게 존재하는데도 산별노조가 통일적 적용을 요구하면 이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업들은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별 단위의 입단합 중앙교섭이 이뤄지더라도 개별기업 차원에서 사용자 노조가 반복하거나, 거꾸로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노사문제가 잘 풀리는데 산별차원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전체 기업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목적인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회의적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원청,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별취재반)

하이 Hi Teen 공부합시다

산별노조는 비정규직·5인 이하의 최소 규모 노동자·실업자도 조직대상이 된다

## 경제 글로벌화·노동조건 다양 다국적·대기업 중심 '산별' 쇠퇴

선진국은 지금 산업별노조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산별노조의 분거지인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등지의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사교섭이 산업별 협상이 아닌 기업별노조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970~90년대 막강한 힘을 자랑한 유럽의 산별노조가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근로조건을 산업별이 아닌 독자 기업별로 결정하려는 근로자들의 정서가 단체교섭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노동조건이 다양해지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없이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는 인식이 구성원 개개인으로써 결단된 결과인 셈이다.

◆내리막길 걷는 유럽 산별노조=1990년 후반들어 진행된 급속한 세계화는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냉엄한 경제원리를 심어주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된다는 현실 앞에서 노조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동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들이 기업 생존에 무게를 두면서 기존 산별노조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의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노조들이 산별노조의 약세를 주도하는 추세다. 유럽 산별노조의 균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노조 조직률, 독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35%를 상회하던 조직률이 2003년 26.6%로 하락했다. 실제 독일의 5개 서비스노조가 뭉친 통 합서비스노조(Verdi·조합원 300여만명)의 경우 2003년 26만4천여명, 2004년 24만4천여명으로 줄었다. 독일급속노조와 운송노조, 화학·에너지노조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유럽의 노동운동에 밝은 노동부 관계자는 "유럽의 산별노조가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어 세계화에 따른 시장경쟁이 격화돼 신자유주의 열풍이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데다 경기 불황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분권교섭 확산=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는 유럽과 미국 등지의 상당수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기업별노조 수준의 분권교섭에 나서고 있다. 산별노조 체제가 근간인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노조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측의 분권교섭방식에 응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산별협약을 통해 노사안정을 피해온 독일에서도 개별기업 협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 가운데는 폭스바겐, 지멘스 등이 이미 개별교섭을 도입하고 있으며 산별교섭에 부담을 느껴 사용자단체를 탈퇴하는 기업들도 많다. 프랑스는 다국적기업인 휴렛팩커드가 2004년 기업별 교섭을 한 데 이어 공공기업인 보쉬도 지난해 근로시간 연장문제를 노조와 합의했다. 스위스도 기계, 전기, 철도 부문 등을 중심으로 분권화 기류를 타고 있다.

이탈리아는 1945년부터 적용해왔던 산별 중앙협약중 임금조정 문제를 1993년 사실상 폐기했다. 이후 생산성 향상이나 성과 분 등은 기업별 분권교섭으로 반영하고 있다. 항공사인 알리탈리아도 지난해 임금 동결과 감원을 골자로 노사간 협약을 맺었다. 기업별노조는 산업별 지역별 노조연맹에 가입돼 있으나 상급단체의 통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별취재반)

유럽 주요국 임금교섭 단위

국가	전국단위	산별	기업별
네덜란드	★	■	▲
덴마크	★	■	▲
독일	■	■	▲
스웨덴	■	■	▲
이탈리아	■	■	▲
프랑스	■	■	▲

■지배적인 교섭단위 ★존재하는 교섭단위 ▲비교적 중요한 교섭단위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환기유니트

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

대우건설

02-253-3100